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 순 호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1. 연구목적

다문화사회란 협의로는 ‘인종적·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광의로는 ‘구별은 되지만 동등한 여러 문화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정의(천선영, 2004)되지만, 보다 쉽게 말하자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로 동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주류문화에 대한 차별과 주류문화로의 인위적인 동화정책이라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을 통하여 주류사회로의 동화에 무게를 두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다문화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필요조건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해소라는 충분조건도 만족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인식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문화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국제결혼이주자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중적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중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이 전제된다. 물론 다문화교육도 주류와 비주류 사회구성원, 학교 및 시민 등의 교육대상,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그 유형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개념(Baker, 1994; Suzuki, 1979; Davidman, 1997; 박상철, 2008)과 목표(Banks, 2004; Sleeter & Grant, 1987; Ramsey & Derman-Sparks, 1992; Derman-Spark, 1989; Ramsey, 1987)도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거나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 특히 국제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글과 한국문화교육 중심의 시민교육과 지원에 초점을 둔, 말하자면 외국인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고 사회화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다(김선미·김영순, 2008). 물론 영

* 본 논문은 2008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국이나 프랑스 등 이민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도 초기에는 동화주의 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후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小林哲也·江淵一公, 1997).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국제결혼이주자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학자녀는 각각 18,778명과 1,401명으로 총 20,180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다문화 가정의 취학연령대의 자녀수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인, 2009).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취학자녀들은 부모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성장과정부터 기초학습이 제대로 되지 못한 관계로 학교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로 인한 따돌림을 받음으로써 고학년이 될수록 이들의 이른바 ‘탈학교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학교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취학자녀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학습교수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고 있다(김인, 2009).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 걸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의 관련 주체들의 성격은 사회문화적으로, 심지어는 인종적으로도 지극히 상이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의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실태(김갑성, 2006; 이수정, 2009; 박은애, 2007; 홍영숙, 2007, 안경식 외, 2007 등)와 실천적 방안(장인실, 2008; 원은경, 2007; 최연경, 2008; 은지용, 2007 등) 그리고 정책 대안(전경숙 외, 2007; 김인, 2009; 박상철, 2008; 교육인적자원부, 2006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다문화가정의 취학자녀의 절대다수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다문화 학교교육¹⁾의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한 의식의 실태 및 특성을 고찰하고, 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과 설문조사 분석 대상자의 현황

본 연구의 연구대상, 즉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대상은 대구시 초등학교의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이다. 연구대상 선정 이유로는, 첫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2008년 현재 국제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취학자녀의 77.1%가 초등학생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하였으며, 둘째 설문조사 대상자로 교사 외에 일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시킨 것은 다문화 학교교육의 목적이 다문화가정의 취학자녀 뿐만 아니라 이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는 일반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

1) 본 연구에 있어서는 ‘다문화 학교교육’이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소수문화집단에 대한 이해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을 교육하는 다문화에 대한 학교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은 가치관과 태도, 행동양식의 교육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 대도시의 하나인 대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다문화 가정이나 그 자녀수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역별 비율의 평균¹⁾과 비슷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보수성이 강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2008년 말 현재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는 186개교로, 총 재적 학생은 175,778명이고, 교사는 7,774명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대상은 7개구의 전체 초등학교의 30%에 해당하는 57개교²⁾의 학생 124명, 교사 260명 그리고 학부모 132명 등 총 516명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 6일에서 10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표 1).

<표 1> 설문조사 분석 대상자의 지역분포

(단위 : 명, %)

구분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동구	8(14.0)	12(9.7)	16(12.1)	33(12.7)
서구	2(3.5)	20(16.1)	19(14.4)	21(8.1)
남구	6(10.5)	20(16.1)	21(15.9)	38(14.6)
북구	4(7.0)	16(12.9)	20(15.2)	27(10.4)
중구	5(8.8)	12(9.7)	20(15.2)	24(9.2)
수성구	16(28.1)	20(16.1)	16(12.1)	73(28.1)
달서구	16(28.1)	24(19.4)	20(15.2)	44(16.9)
계	57(100.0)	124(100.0)	132(100.0)	260(100.0)

자료 : 설문조사에 의함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대상자는 총 516명으로, 그 중에서 학생은 24%, 교사 50.4% 그리고 학부모는 25.6%를 차지한다. 이들의 성별구성은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인 반면에 학생의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이와 같이 교사와 학부모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또 초등학교의 경우 대체로 어머니가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연령별

1)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18,778명이고, 그 중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의 평균은 486명이고, 대구는 456명으로 가장 평균치에 가깝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총 1,402명 중에서 서울·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평균은 31.3명고, 대구는 33명으로 가장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어, 대구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시도별 평균값과 유사하다.

2) 각 구별 설문조사대상학교는 동구의 동대구, 동신, 신성, 신암, 신천, 아양, 율하, 영신초등과 서구의 서부, 평리초등, 남구의 남대구, 남도, 대명, 봉덕, 성남, 성명초등, 북구의 관남, 산격, 칠성, 침산초등, 중구의 남산, 동성, 명덕, 삼덕, 종로초등, 수성구의 경동, 고산, 대청, 동산, 동성, 동천, 범어, 범일, 사월, 삼육, 성동, 수성, 용지, 옥수, 지산, 파동초등 그리고 달서구의 대구교대부속, 대진, 상인, 선원, 성남, 성서, 용산, 용전, 월배, 월서, 월촌, 유천, 장기, 진월, 진천, 효성초등학교이다.

구성에 있어서는 교사의 경우 30대 이하가 160명으로 전체의 6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대 59명(22.7%), 50대 34명(13.1%)의 순이다.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는 30대 이하(45.9%)와 40대(48.1%)가 90%이상이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로 1-2학년생을 당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학년별 구성비를 보면 4학년이 37명(29.8%)으로 가장 많고 높고 다음으로 5학년(29.0%), 6학년(25.0%) 그리고 3학년(16.1%)의 순이다.

<표 2> 설문대상자의 연령 및 학년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계
교사	남	52(62.7)	12(12.0)	16(19.3)	3(3.6)	83(100.0)
	여	108(61.0)	47(47.0)	18(10.2)	4(2.3)	177(100.0)
	소계	160(61.5)	59(22.7)	34(13.1)	7(2.7)	260(100.0)
학부모	남	9(25.7)	22(62.9)	3(8.6)	1(2.9)	35(100.0)
	여	52(53.6)	42(43.3)	2(2.1)	1(1.0)	97(100.0)
	소계	61(45.9)	64(48.1)	6(4.5)	2(1.5)	132(100.0)
구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생	남	11(19.3)	17(29.8)	14(24.6)	15(26.3)	57(100.0)
	여	9(13.4)	20(29.8)	22(32.8)	16(23.9)	67(100.0)
	소계	20(16.1)	37(29.8)	36(29.0)	31(25.0)	124(100.0)

자료 :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2) 설문지 내용 및 변수의 구성

설문내용은 크게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방법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부문별 변수는 먼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대한 변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지정도(X1), 다문화교육의 개념(X2), 다문화교육의 경험 유무(X3), 경험 경로(X4)와 다문화교육 경험 만족도(X5)로,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한 변수는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X6),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한 이유(X7) 및 현재 다문화 학교교육의 실시 정도(X8)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방법의 변수는 바람직한 교육과정(X9)과 바람직한 수업방법(X10) 그리고 적정 실시시기(X11) 등 총 11개의 변수로 구성된다(표3).

<표 3> 설문내용과 변수 및 그 범주 값

설문내용	변수	변수명	변수의 범주 값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x1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지정도	1= 매우 잘 알고 있다, 2=잘 알고 있다, 3=보통이다 4= 잘 알지 못한다, 5=전혀 알지 못한다
	x2	다문화교육의 개념	1=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2=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 4=기타
	x3	다문화교육의 경험 유무	1=있다, 2=없다
	x4	다문화교육 경험 경로	1=학교교육을 통해서 2=대중매체(TV, 인터넷 등)를 통해서 3=직장교육을 통해서(학부모) 3=부모님을 통해서(학생) 3=교사연수를 통해서(교사) 4=NGO 등 다문화 관련기관을 통해서 5=책이나 팸플릿을 통해서 6=기타
	x5	다문화교육 경험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x6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	1=매우 필요하다, 2=필요하다 3=그저 그렇다 4=필요하지 않다, 5=절대 필요하지 않다
	x7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한 이유	1= 타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확대 2=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 3=인종, 성, 사회적 지위 등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식의 확대 4=우리사회에도 타 문화권 출신자(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 등)가 늘어나기 때문 5=기타
	x8	현재 다문화 학교교육의 실시 정도	1=매우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보통임 4=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실시시기	x9	바람직한 교육과정	1=범교과적으로 실시 2=특정과목 중심으로 실시 3=다문화 교육 전문가에 대한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 형태로 실시 4=기타
	x10	바람직한 수업방법	1=전 단원에 걸쳐 실시, 2=하나의단원에 집중적 3=특별수업의 형태, 4=기타
	x11	적정 실시시기	1=유치원,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3.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있어서는 다문화교육에 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비율이 총 조사대상자의 30%, 학부모의 50%, 특히 학생의

7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스스로가 보통보다는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그렇지 못한 비율보다 낮았다. 더욱이 보통보다는 잘 알고 있다는 비율에 있어서 교사의 경우도 전체의 1/4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학부모는 초등학생인 자녀보다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른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으로, 반면에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교사와 학생은 각각 33%와 22% 정도이고, 학부모는 겨우 5%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TV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중심이고 학교나 타 다문화 관련기관을 통한 직접 경험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 실제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초등교육 3대 주체가 현재의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지수이다.

둘째, 이상의 열악한 다문화교육의 실태를 반영하듯 다문화 학교교육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사회구성원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이었다. 그러나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은 교사나 학부모와는 달랐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부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갈등을 공유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다문화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의 거의 9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초등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다문화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셋째,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그 실시 시기에 있어서는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되 범교과적 교육과정이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교과적인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전 단원에 걸쳐', 특정과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문화 교육 전문가의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특별수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한 교육과정이나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선호도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요약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assimilation) 성향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국제결혼이주자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글과 한국문화교육 중심의 동화주의에 초점을 둔 결과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관점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편협되고 왜곡된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둘째, 교육대상의 범위와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다문화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육목표와 내용, 방향성과 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이제 시작단계라고는 하지만 아직 교육대상이 지극히 제한된 범위와 범주에 한정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문화교육 대상의 범위와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대상별 교육과정과 내용 그리고 수업방식을 포함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편향적인 시민교육에서 벗어나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양자가 균형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막론하고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매우 적고, 그것도 주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문화의 이해수준과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그 결과 조사자의 절대다수가 다문화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정도에 따라 그 필요성과 이유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정도와 필요성 및 그 이유의 범위는 정(正)의 관계에 있었다.

넷째,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되, 현재의 초등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범교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에 따라 그 방법은 달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회의 다문화집단 간의 공존을 위한 장애극복과 공존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동화주의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학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주체들 간의 공유의식을 전제로 각각의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김영순, 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인, 2009,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지향점, 초등교육연구, 22(1), 23-42.
- 박상철, 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 초등교육연구, 21(2), 1-19.
- 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식 외, 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원은경, 2007, 다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일반학생의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초등학생 고학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은지용, 2007, 청소년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17-241.
- 이수정, 2009,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문화교육의 과제와 방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실, 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 281-305.
- 전경숙 외, 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천선영, 2004,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한·독사회과학논총, 14(2), 363-380.
- 최연경, 2008,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가족구조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小林哲也·江淵一公, 1997, 多文化教育の比較研究, 九州大學出版會, 福岡.
- Baker, G. C, 1994, Planning and organizing for multicultural instruction, Addison-Wesely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Banks, J. A, 2001,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 Banks, J. A,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Characteristic and Goals. In Banks, J. A. and C. A. M. Book(Eds.), Multicultural education : Issues and perspectives(5th ed), 3-30.
- Davidman, L. and Davidman, P. T, 1997, Teaching whit a multicultural perspective : A practical guide(2nd ed.), Addison Wesley Longman, Inc, New York.
- Derman-Spark, 1989; Anti-biascurriculum :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NAEYC, Washington, DC.
- Ramsey & Derman-Sparks, 1992, Multicultural education reaffirmed, Young children, 47(2), 10-18.
- Ramsey, 1987,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Sleeter & Grant, 1987,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S. Harvard Education Review, 57, 421-444.
- Suzuki, B. H, 1979, Multicultural education : Whats it all about. Integrate education, 17, 42-50.
- The encyclopedia of American education, 1996,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2nd ed.), 630-631.